

캠퍼스 셔틀버스 이용자 83.5%, ‘운행시간에 불만 있다’

셔틀버스 이용자 불만

정혜빈 기자 hb0204@knu.ac.kr

양 캠퍼스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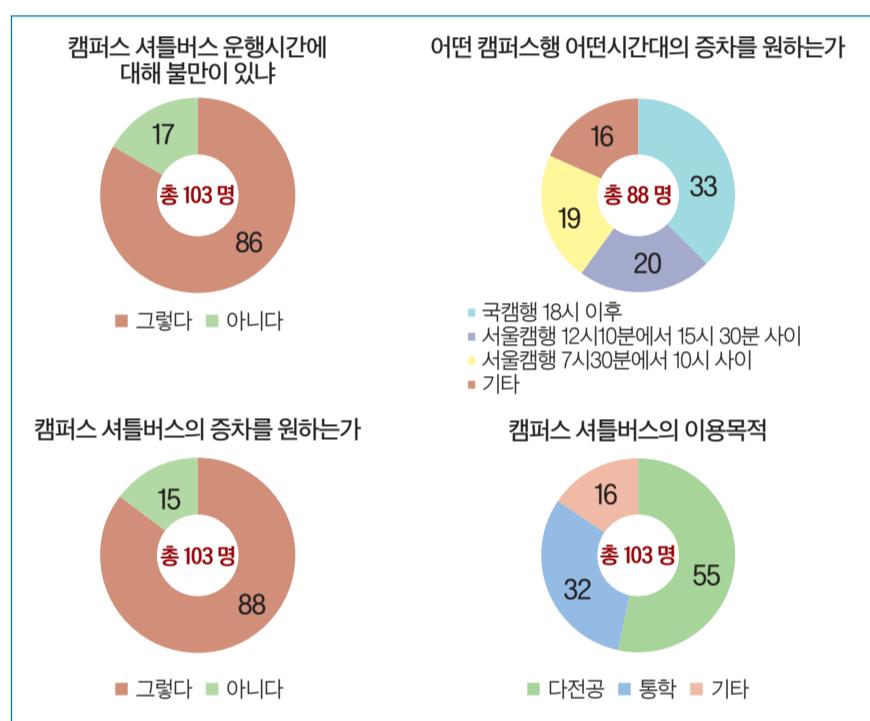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11270 번째 사연에는 ‘국제캠퍼스(국제캠) 행 셔틀버스는 가장 이른 운행시간이 아침 10시이고 마지막 운행시간이 5시 30분이다’라며 ‘서울캠퍼스(서울캠) 수업과 국제캠 수업을 함께 수강을 하는 것은 운 좋게 셔틀버스 운행시간과 수업시간이 맞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한 시간표 공유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도 ‘캠퍼스 간 복수전공을 하기에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너무 애매하다’며 ‘강의시간이랑 전혀 맞지 않는 버스시간표’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시된 바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캠퍼스 간 이동을 하려면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때문에 학생들은 약 1시간 10분 정도면 편리하게 양 캠퍼스를 오갈 수 있는 셔틀버스 탑승을 선호한다. 셔틀버스 출발 시각은 국제캠에서 오전 7시 20분, 7시 30분, 10시, 오후 12시, 12시 10분, 3시 30분이며, 서울캠에서는 오전 10시, 오후 12시, 1시 30분, 4시, 5시, 6시이다. 셔틀버스는 학기 중 평일 기준, 하루에 총 12회 운영된다.

수업시간과 맞지 않은 운행 시간 막차 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도 커

우리신문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34명의 학생들에게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수업 시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6명의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니다’라고 답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캠퍼스 간 다전공을 위해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신정렬(한국어학 2009) 군은 “서울캠 행 셔틀버스 막차가 15:30분 이라 수업이 그 시간에 끝나면 셔틀버스 이용이 어렵다”며 “막차시간을 18시까지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인홍(전자·전파공학 2014) 군은 “셔틀버스 배차 간격이 커 수업시간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



다”며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시간대를 다양하게 했으면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무처 총무팀 박수인 계장은 “과거에 셔틀버스 운행시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는 잘 모르나, 학생회의 언급이나 학생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국제캠 총학생회 김용석(화학공학 2012) 회장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총무팀과 학생회 간의 미팅에서 “셔틀버스 시간대에 따른 학생들의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

해 불만이 있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존 셔틀버스 운행 시간에 대한 불만으로 국제캠 행 18시 차에 대해 ‘수업 끝나고 타기에 너무 족박하고 탑승인원에 비해 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캠 행 15시 30분 차에 대해서는 ‘16시 30분에 시작하는 수업을 지각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서울캠 행 7시 20분 차에 대해 ‘교통상황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1교시 수업을 지각하게 된다’며 ‘수업시간에 맞게 시간을 앞당겨 조정했으면 한다’ 내용이 있었다.

‘캠퍼스 셔틀버스의 증차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85.4%가 ‘원한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 18시 이후의 국제캠 행 셔틀버스에 대한 증차요구가 37.5%로 가장 많았다.

긴 배차간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던 만큼 12시 10분에서 15시 30분 사이에 서울캠 행 셔틀버스에 대한 증차요구 역시 22.7%를 기록했다. 이어서 7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서울캠 행 셔틀버스에 대한 증차를 요구하는 응답자도 21.6% 이었다. 13시 30분에서 16시 사이에 국제캠 행 셔틀버스와 국제캠에서 열리는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한 10시 이전 버스의 증차요구도 있었다.

학문간 융합을 강조하는 학교 다전공을 위한 지원은 미비해

한편, 전체 응답자 중 53.4%는 ‘캠퍼스 셔틀버스의 이용목적’에 대해 ‘다전공’이라고 답했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11270 번째 사연에 셔틀버스 운행시간에 대한 불만을 댓글로 달았던 임수영(경제학과 2011) 군은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도가 뒷받침 돼있지 않다”며 캠퍼스 간 다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겪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학문 간 융합을 강조하며 다전공 제도를 마련하는 우리학교에서 다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물리적 지원은 막상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박 계장은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두개의 취진처’ 정보공시·취업프로그램 제각각, 취업준비생들 혼란 가중돼

프로그램 방향성, 리쿠르팅도 문제 … 취진처, “불분명한 이원화 해결되면 역량집중 가능할 것”

하나의 경희 #3-1. 취업으로 본 경희

이시은 기자 dtldms77@knu.ac.kr

우리학교 취업진로지원처(취진처)가 인턴십·기업채용 공고 등 취업정보를 캠퍼스 별로 따로 공시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더해 양 캠퍼스 취진처에서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캠퍼스 리쿠르팅 현황이 각각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로 집중되고 있어, 캠퍼스 별로 존재하는 소수 계열들이 도외시된 상태다.

기존부터 우리학교의 취진처는 각 캠퍼스 별로 다르게 존재해왔다. 현재도 온라인 포털 상에는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라는 명칭으로 구별돼있다. 공시내용 또한 학생 개인의 취업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 학교로 추천의뢰가 들어온 기업정보와 일반 공채정보를 표기하는 ‘채용정보’ 등으로 항목은 비슷하나 속내용은 모두 다르다.

취업프로그램 역시 ‘취업스쿨’이라는 일부 프로그램의 명칭을 제외하고 학년 단계



별로 모두 다르다. 특히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 올해부터 각 단과대학과 연계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행되는 ‘KNU 사회진출지원 5 Step’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양 캠퍼스 간의 취업 프로그램 격차는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다.

취진처 측은 소속 캠퍼스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모두 활용 가능한 정보이고, 표기만 나눠 하는 것이므로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국제캠 취진처 측은 “추천채용 정보 등이 마치 각 캠퍼스별 소속 학생만 지원 가능하게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모든 학생들이

신청 가능하다”며 “운영만 캠퍼스별로 따로 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취업 프로그램은 “기숙사 등 환경적인 이유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정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은 다르다. 취진처 페이지에 접속해 본 적이 있다는 신다진(컴퓨터공학 2011) 군은 “공시정보의 채용 범위가 캠퍼스별로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분리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년별 취업 프로그램 또한 서로 달라 캠퍼스 간 다전공자 입장에

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는 취업 프로그램들의 ‘방향성’과 캠퍼스 리쿠르팅에서도 제기된다. 각 캠퍼스가 쏟는 취업역량이 ‘특정 계열’에 쏠리면서, 소수의 계열들이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캠 취진처 노동섭 부처장은 “외부에서 보는 각 캠퍼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캠퍼스 리쿠르팅 기업도 각 캠퍼스의 중심계열에 맞게 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행 셔틀버스(서울캠) 취진처 측 역시 “서울캠으로 오는 기업 리쿠르팅 직무의 80% 가량이 인문·사회계열”이라며 “서울캠의 학과 특성이 이유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이 같은 정보를 캠퍼스 간에 공유해 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소수 계열의 취업준비생은 정보를 알 길이 없다. 현재 각 캠퍼스 취진처는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리쿠르팅 정보를 발송하는 상태다.

국제캠 취진처 이용택(화학공학) 쳐장은 “아무래도 국제캠퍼스가 이공계열 중심, 서울캠 캠퍼스가 인문사회계열 중심 아니겠느냐”며 “장기적으로 각 취진처 입장에서도 한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제캠 취진처의 경우, 취업스쿨 강좌 내부에 몇몇 인문계열 취

업자를 위한 강좌를 내세웠다가 인원이 모자라 폐강된 사례가 있다. 반면 공학계열의 취업스쿨 강좌의 경우 기준 강의 수요를 훨씬 넘어서 증설까지 된 상태라, 내부 프로그램들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양 캠퍼스가 명확한 기준으로 학과분류가 된 상태도 아니라서, 각 캠퍼스에 존재하는 소수 계열의 고종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캠 학과를 다전공 중인 어문계열 학생 신혜인(일본어학) 양은 “캠퍼스 리쿠르팅만 봐도 같은 문과라지만 소수인 국제캠 문과가 취업에 직면한 어려움이 훨씬 큰 것 같다”며 “복수전공이라도 해보겠다고 서울캠까지 올라가는데, 돌파구가 이것뿐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캠퍼스 간 계열 정리가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 프로그램이나 캠퍼스 리쿠르팅 등의 취업정보들은 각 캠퍼스의 중심 계열에 쏠리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 이어지는 온라인기사에서는 #3-2. 기업의 ‘사실상 분교표기’ 문제에 대해 다룬다